



## 미 증시,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에도 성장주 중심으로 강세

###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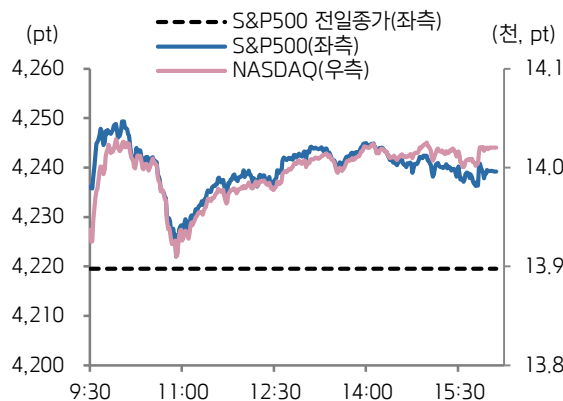
10 일(목) 미국 3 대 증시는 5 월 소비자물가 서프라이즈에도, 일시적 인플레이션 인식 확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였던 ECB 정책 회의, 시장금리 하락(10년물 1.43%대 진입)에 힘입어 성장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다우 +0.1%, S&P500 +0.5%, 나스닥 +0.8%). 업종별로는 헬스케어(+1.7%), 부동산(1.0%), 기술(+0.8%) 등이 강세, 금융(-1.1%), 소재(-0.6%), 산업재(-0.5%) 등이 약세.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는 5.0%(YoY)로 전월(4.2%) 및 예상치(4.7%)를 상회. 변동성이 큰 에너지 및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도 3.8%로 전월(3.0%) 및 예상치(3.4%)를 상회하는 등 4월에 이어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를 기록. ECB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판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도 1조 8,500억유로(내년 3월말까지)로 유지하기로 결정. 성장 전망 변화와 관련해서는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4.6%로 상향했으며,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기존 1.5%에서 1.9%로 상향. 라가르드 ECB 총재는 하반기에 강력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 물가 압력을 높였다고 진단하면서도 여전히 실제 물가 압력과 기대인플레이션은 완만한 상태라고 평가.

### 미국 증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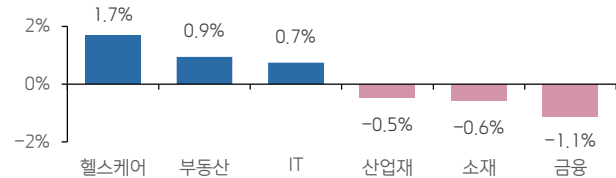
5월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큰 폭 상승했음에도, 지난 4월과 달리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배경은 공급 병목 현상, 수요 급증 등 수급 상 일시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바가 컸기 때문. 5월 중고차 가격은 29.7%(YoY)를 기록하며 소비자 물가 상승을 견인했으나, 반도체 공급난 미해소 속 본격적 일상활동 재개로 드라이브, 여행, 레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 그러나 가격 변동성이 적은 근원 소비자 물가가 3.8%대를 기록한 것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진단을 시장이 접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연준 위원들은 6월 FOMC까지 통화정책 관련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 따라서, 인플레이션 불안 장세가 완전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6월 FOMC까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며 대응하는 전략이 적절하다고 판단.

S&P500 일중 차트(6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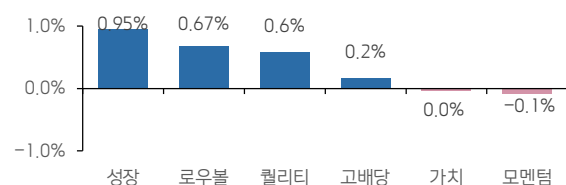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6월 10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6월 10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  |
|-------------------------|--|
| <b>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b> |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3%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8%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3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2.3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 <b>주요 체크 사항</b>         | 1. 매크로 환경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재개 여부<br>2. 시장 금리 하락이 성장주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br>3. 최근 주가 변동성이 심한 원전 테마주들의 재료 소멸 가능성                           |

### 한국 증시 리뷰

10일(목) 코스피는 미국 소비자물가 발표 경계심리, 원전 테마주 동반 약세에도, 전거래일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른 미국 성장주 강세 속 현선물 동시 만기일을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순매수로 소화해낸 영향에 힘입어 상승 마감(코스피 +0.3%, 코스닥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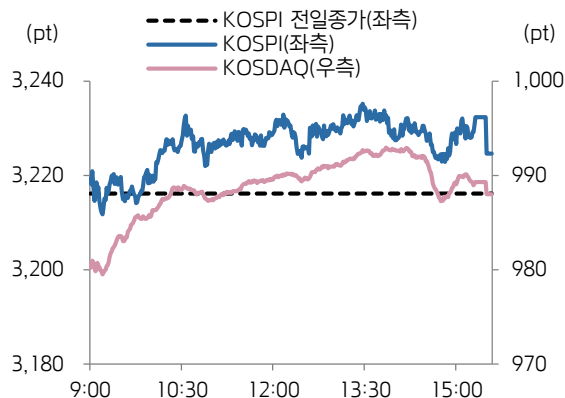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서비스(+2.2%), 의약품(+2.1%), 섬유 의복(+1.8%) 등이 강세, 은행(-1.8%), 건설(-1.4%), 보험(-1.2%) 등이 약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6,994억원, 3,708억원 순매수, 기관은 1조 880억원 순매도를 기록.

### 한국 증시전망

한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를 긍정적으로 소화한 미국 증시 강세에 영향을 받아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단기 수급 불안 요인이었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종료됐다는 점도 수급 상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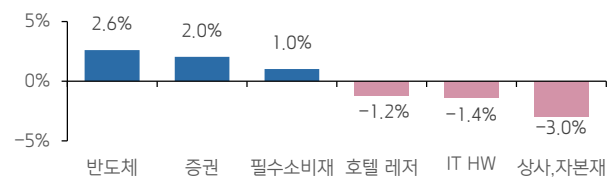
또한 추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단기적으로나마 현재 미국 10년물 금리를 포함한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는 그동안 금리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가가 여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정체됐던 성장 팩터 관련 업종(Ex 인터넷, 제약, 바이오, 반도체 등)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KOSPI & KOSDAQ 일종 차트(6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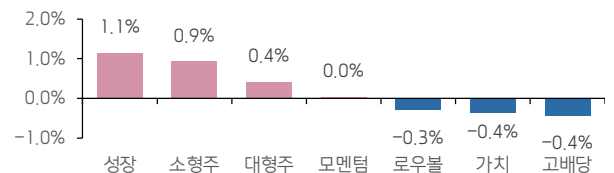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6월 10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6월 10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분석 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